高麗시대의 건축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Korea Period

張慶浩
문화재 연구소장
by Chang, Kuyng-Ho

1. 역사의 概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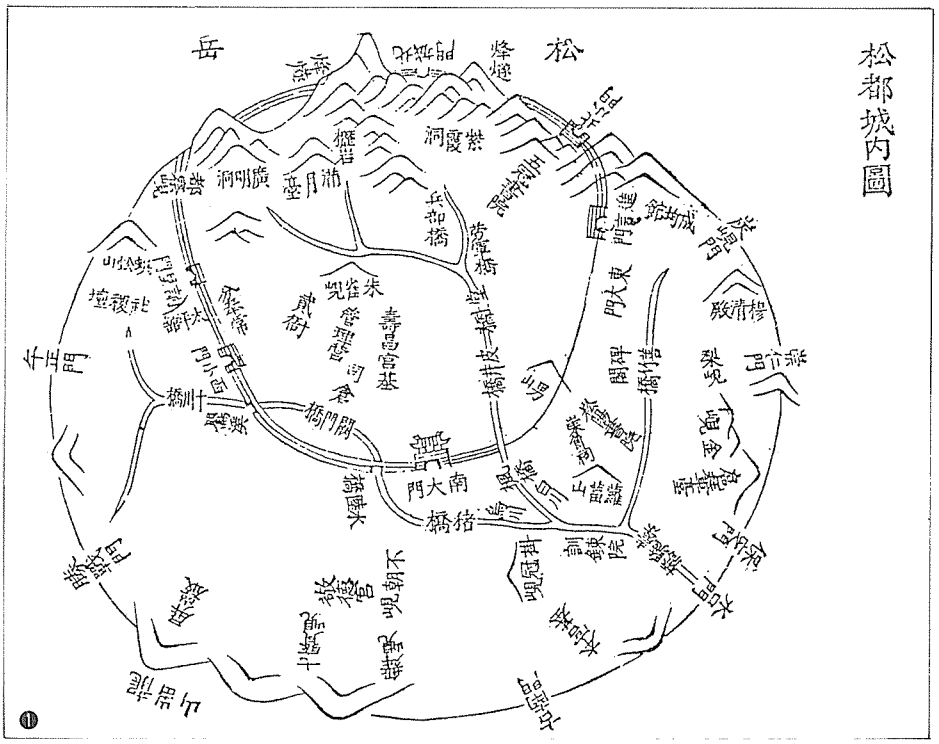
고려 태조 王建은 원래 泰封왕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당시 호족의 세력을 배경으로 폭군인 궁예를 축출하고 918년에 왕위에 올라 국호를 高麗라 하고 935년에는 신라를 병합시키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시켜 결국 後三國을 통일하여 王基를 잡았다. 후삼국의 분열기를 거쳐 궁예나 견훤 등의 실책과 멸망의 길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데 교훈을 삼고 북진정책을 써서 국토를 넓히고 도읍을 開城으로 정하였으나 고구려의 뜻을 받들어 그의 도읍이었던 평양을 중요시하여 西京이라 하고 역대왕이 한 해에 3개월간은 이곳에 주둔하여 북쪽을 살피도록 하였다. 또 삼국의 문화를 비롯하여 오랜 전통을 가졌던 통일신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불교를 국교로 하여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과 道詵에 의한 風水地理思想의 존중 등은 이 시대의 민속문화는 물론 건축문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각도로 선회하는 큰 영향을 주었다.

태조는 열 가지의 조항으로된 교훈(十訓要)을 후대에 남겨 지키도록 하였는데 그 중요내용은 불교를 숭상하되 사찰의 분별없는 영조를 금지하고 풍수지리를 존중하여 地德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게 할 것이며, 西京(평양)은 우리나라의 지맥의 근본이 되니 연중 100일은 이곳에 주둔하여 국가를 지킬 것, 부처를 받드는 영산제나 天靈과 五嶽의 명산 그리고 龍神을 섬기는 팔관회 등을 존속시키되 경솔하게 제도를 바꾸지 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려는 건국초부터 북쪽의 만주를 근거로 세력을 뻗는 契丹과 부딪치게 되어 결국 993년에 제1차 침입을 받았으나 徐熙의 외교적 타결로 무사하고, 그 후 1018년 3차 침입시에는 강감찬에 의하여 대파되어 물러갔으며 1019년에는 강화관계로 유지되었다. 이 무렵 북쪽에 또 하나의 무리들이 고려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진족이다. 여진은 결국 遼(글안)를 멸망시키고 고려와 문화 교류를 깊이 가졌던 북송을 開封에서 남으로 쫓아내고 국호를 金이라 하였다.

1126년 고려는 金과의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어 정권을 겨우 유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南宋과는 상인들의 내왕으로 교류가 계속되었다.

국내에서는 귀족들의 세력다툼에 의한 내란이 빈번하여 李資謙의 亂, 妙淸의 亂 등이 일어나고 특히 武臣의 亂은 文臣을 존중하고 武臣은 천대하던 사회 풍토가 뒤바뀌게 하는 혼란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정권쟁탈과 천민의 반란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결국 최충헌의 武人獨制體制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몽고의 신흥세력에 밀려



만주의 형세가 달라지게 되며, 이를 틈타 고려를 괴롭힌 글안족 등으로부터 高宗이래 20년간 6차에 거쳐 몽고의 난을 겪게 되었고 1232년에는 江華島로 천도하여 離宮까지 건립하게 되었지만 결국 1258년에는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몽고와 강화를 이루어 다시 開京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후 고려는 몽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몽고의 世祖는 국호를 元이라 하여 南宋을 멸망시키고 유럽까지 침공하여 그 세력은 실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휩쓸은 기세로 확장되었다. 고려는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젊은 여인을 공녀로 바쳤으며 이외에 귀한 貢物을 해마다 받쳐야만 하였다.

한편 최씨 정권이 몰락하였음에도 崔瑀가 설치한 이들의 私兵과 같은 군대인 三別抄는 元과 끝까지 항쟁하려고 裵仲孫을 두목으로 반란을 일으켜 진도 龍藏山城에 진을 치고 당시 왕족인 溫을 왕으로 추대하여 대치하다가 결국 官軍과 元 軍에 쫓겨 濟州道에 들어가 성을 쌓고 버티다가 원종 14년(1273) 패멸하였다. 지금도 진도에는 용장산성의 유적이 잘 남아있는데 북쪽은 해안을 따라 축성되었고 남쪽은 산능선을 따라 축조된 석성이다. 성의 둘레는 『大東地志』기록에 의하면 38,741尺이라 하고 실제 조사에서는 12.85㎞가 되었다.[1]

이 성곽내 남쪽 산 溪谷을 따라 宮址가 북향해 있는데 고려 궁지의 특징으로 남쪽 언덕을 따라 올라간 段을 형성하고 각 단마다 건물을 배치한 유구가 남아있다. 한편 제주도에 쌓은 缸波頭里 土城은 그 둘레가 15里에 달하는 2重城이었다고 한다. 내성은 둘레 약 1㎞의 方形 평면을 한 石城이었고 내성 안에는 행궁, 관아, 병영 등이 있었다 한다.[2]

고려시대의 건축문화는 많은 外的인 요소의 첨가와 內的인 土俗的 요소의 가미로 새로운 개화의 장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태조 이래 역대 왕의 불교의 崇仰政策으로 왕자들이 불교계로 출가하여 國師나 大師 또는 禪師 등으로 활동하였고 그중 大覺國師 義天은 우리나라의 天台宗을 일으키고 5敎9山에서 5敎兩宗으로 발전시키어 敎禪合一을 꾀하였다.

이 시대에 있었던 건축사적인 大사건은 平壤城이나 滿月臺와 같은 宮城을 대대적으로 건조 또는 수축하고 많은 사찰을 건축한 업적도 있겠지만 한편 당시까지 연연히 보존해오던 황룡사와 같은 국보급의 유구와 문화재들을 몽고난대 소실시킨 재난을 겪기도 하여 오늘날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중요한 건축활동을 요약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表에서는 重要한 사항만을 기술한 이며 이외에 기록된 사실들은 이보다 더 많았음을 添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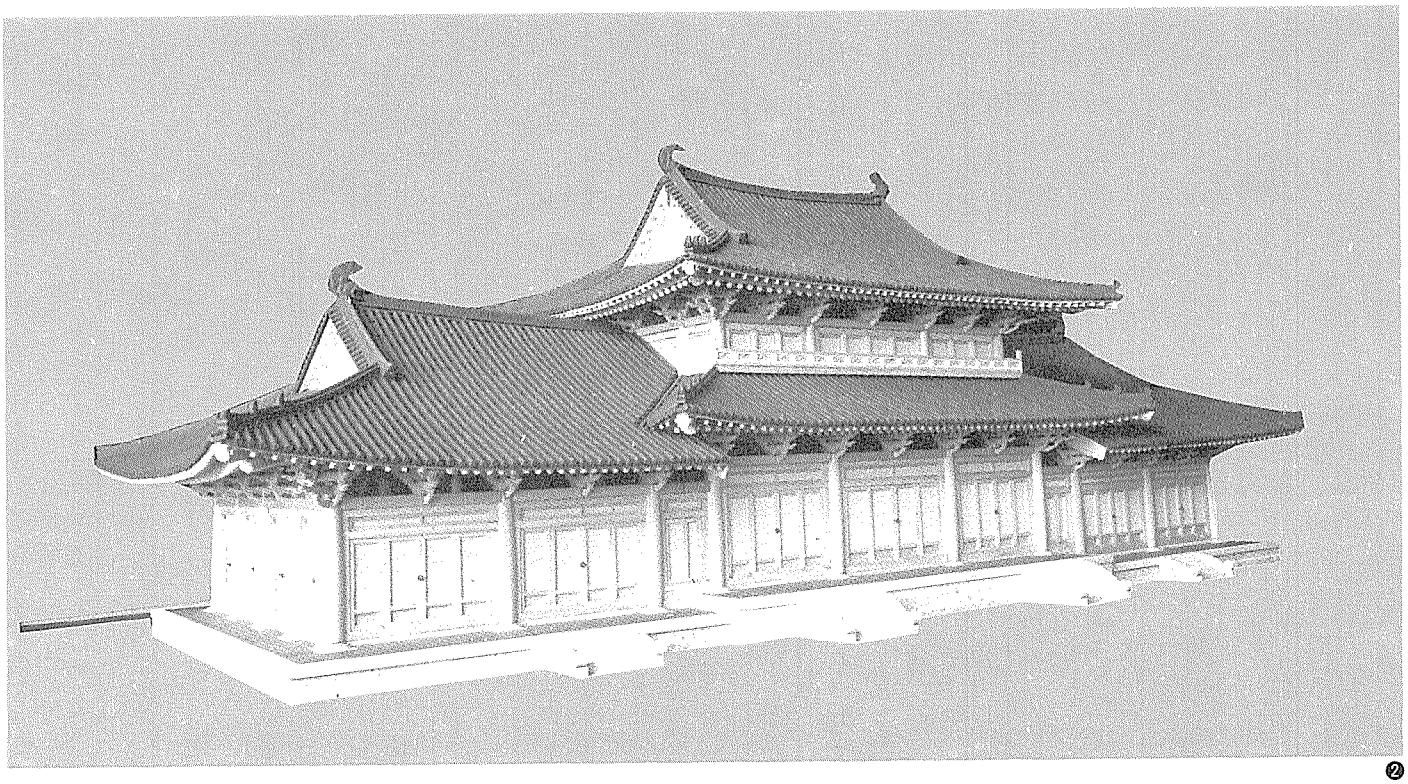
2. 都城및 宮闕

1. 都城

고려는 태조2년(919)에 開京(開城)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곳은 일명 松都라고도 하고 또 扶蘇甲·冬比忽 등으로도 불리웠다. 북쪽에는 송악산을 진산으로 동과 남서에는 각각 龍岫山과 進鳳山이 있고 성 주위로 흐르고 있는 강을 낀 분지에 놓여 王都로서 지세를 갖추었고 후고구려의 궁예는 이곳에 8년간이나 도읍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왕건은 한때 궁예의 휘하에서 이곳에 勃禦塹城을 축성하여 성주로 있었다. 왕건이 이곳에 도읍을 정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風水地理說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道詵은 도교의 陰陽五行사상과 한국 고래의 샤만적 점술 등을 결합한 風水地理說을 발전시켜 지형과 지세가 국가나 개인의 길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분묘를 정하는데도 이 이론을 적용시키어 해석하였고 도읍을 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고려때 크게 성황을 이루었다.

고려는 거란과 함께 외침의 시달림을 자주 받게 되어 강감찬은 왕에게 주청하여 外城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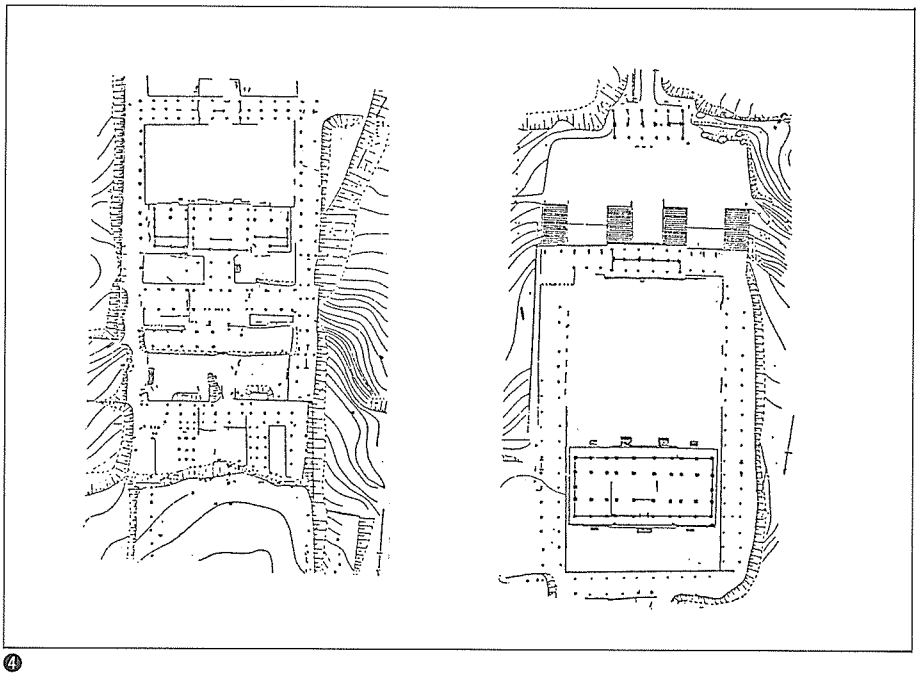
❶ 松都城內圖
❷ 長和殿 復元模型
❸ 滿月臺 復元 模型
❹ 長和殿 일곽과 그 북측의 유구, 閶闔門과 會慶殿 일곽

축성하게 되고 현종20년(1029)에 완성된 외성은 흙으로 쌓은 土城으로 두께가 12尺이라 한다. 성 주위에는 대문 4개, 중문이 8개, 소문이 13개가 있었다 한다. 여기에 동원된 백성이 34만4천명에 달했고 외성내는 5部 35坊 344里로 되어 있었다.

『高麗圖經』에 의하면 「그 성의 둘레는 60里이고 산형을 두르고 지형을 따라 흙과 돌을 섞어 쌓고 성 외부에는 壕塹이 없으며 여장을 쌓지 않고 집을 이어 廊을 이룬 듯하여 적루와 같다」 라고 기록되어 土石을 混築한 성곽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輿地圖書』 松都편에 나타난 松都城內圖를 보면 外城과 內城이 있는데 內城의 4대문으로 남쪽에 南大門, 東에 進言門, 西의 訥里門, 北에 北城門등이 있고 그외 內東大門과 西少門 등이 동남향과 서남향에 각각 있다. 외성에는 正南에 古南門, 正東에 崇仁門, 正西에 午正門, 그리고 북에는 내성의 북문과 겹쳐 있다. 이외에 동남쪽에 保定門, 동북에 炭峴門, 서남에 勝戰門, 북동에 北小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문명은 『高麗圖經』에 기록된 12城門명과는 차이가 있어 후에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문명은 정동에 宣仁·崇仁·安定門이 있고 동남에 長覇門, 정남에 宣華·會賓·泰安門이 있으며 서남에 光德, 정서에 宣義·麻峴門, 정북에는 北昌門 동북에는 宣祺門이 있다고 한다. 성내도를 살펴보면 성내 북쪽, 송악 남서쪽 기슭에 궁터가 있는 만월대가 놓여있고 내성 남쪽에 치우쳐 壽昌宮터가 있으며 내성밖 남쪽에 敬德宮이 있고 내성밖 동·서편에 성균관과 사직단이 위치한다. 또 성내에는 白川과 烏川이 흘러 피정교·궐문교·선죽교 등의 다리가 놓여있다. 또 조선 정조때 간행된 『高麗古都徵』기록에 의하면 선의문은 使臣들이 들어 왔던 곳이고 북창문은 사신이 돌아가던 길과 祠廟로 통하는 문이라 하여 북문 밖에 廟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에 의하면 고종때 京都는 10萬戶가 되었다 하여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을 西京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 평양성을 쌓고 국왕이 巡住하도록 하였다. 평양성 역시 내·외성을 이루어 동·서·남에 자연해자를 이루고 있는 대동강과 보통강이 있어 고구려때부터 요새의 도성으로 지키었던 곳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조선초기 건물이긴 하지만 보통강변에 보통문이 있고 대동강변에 대동문이 유명하다. 고려는 이 외에도

❸



❹

東京(경주)과 南京(서울)을 설치하여 개경 외에 三京을 두었다. 그러다가 중기 이후 몽고의 침략을 받아 왕이 강화로 피난하여 江都가 조영되었다. 강도에는 내성과 외성을 두고 주요 요충지에는 곳곳에 산성을 쌓았다. 즉 高麗山城, 文殊山城, 鼎之山城, 古宮城 등이다.

이곳의 궁터는 지금 강화읍 북동쪽에 있는 고려궁지로 불리우는 곳인데 이곳에 이방청이 세워져 있고 궁터의 성격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고려는 이곳에서 39년간을 몽고군과 항쟁하면서 八萬大藏經을 판각한 업적도 남기었다.

2. 宮闕

고려의 正宮은 개성의 滿月臺이다. 만월대는 지금 그 형적만은 남아 있어 대략의 건물배치와 성격을 알 수 있다. 북쪽의 송악을 배산으로 그 남쪽 기슭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데 山地形을 따라 높은 축대위에 건물을 배치했으되 경사에 따라 단을 형성하여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은 배치를 하고 있다. 主 건물곽은 축을 맞추어 일직선상에 놓인 것은 아니고 축을 약간 빗기고 있지만 비교적 남북으로 긴 방향의 배치를 하여 남쪽에서부터 궁의 정문인 昇平門이 있고 그 북쪽에 神鳳門과 창합문터가 있고 이를 지나면 4개소의 높은 계단을 꾸미어 정전인 會慶殿 일곽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

회경전은 정면이 9칸, 측면이 4칸인데 중안 3칸은 좀 높게 마련되었고 양협칸들은 좀 낮게 놓여 마치 翼舍를 둔 것 같은 건물이다. 이러한 형식의 평면은 고구려 안학궁의 주요 전각터에서도 볼 수 있어 고구려때부터 사용된 주요건물의 평면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회경전의 기단은 높이가 5丈이나 되고 단청을 화려하게 꾸몄다 하는데 계단은 전면에 4개소 후면에 3개소, 그리고 양측면에 각한개소씩 있고 건물주위는 회랑으로 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 서북쪽에 乾德殿이 있었다 하는데 이곳에서는 연회를 베풀기도 한 별채의 장소이다. 지금 그 유지는 많이 유실되어 있다. 회경청 북쪽에는 축을 좀 달리하여 長和殿 일곽이 있어 역시 주전과 익사를 둔 형식의 형면을 하고 그 주위에는 회랑을 돌리고 있다.

이곳은 귀한 궁중 보물을 보관했던 곳이기도

고려시대 중요 건축활동 일람

年 月	王名	建造活動
919.1	太祖2	滿月臺의 宮闕건립시작,平壤城 축성, 法王寺, 王輪寺 창건, 都內에 內帝釋寺,舍那寺,天禪寺, 新興寺, 文殊寺, 圓通寺,地藏寺,大興寺,興國寺,開泰寺 등을 창건함
951.	光宗2	태조의 願堂인 大奉恩寺와 佛日寺를 창건
983.5	成宗2	北宋에서 大廟堂圖와 社稷堂圖및 文宣王廟圖 등을 들여옴
992.12	同王11	大廟준공 및 사직당 건립
1007.	穆宗10	眞觀寺九層塔 건립
1024.	顯宗15	開京에 五部坊里를 設定하여 都城整備
1044.8	同王20	京都에 羅城을 축성 완료
1056.2	文宗10	德水縣에 興王寺 始創
1068.	同王22	梁州에 南京新宮 건립
1232.	高宗19	蒙古亂으로 江華로 遷都,宮闕을 造營
1238.4	同王25	蒙古兵에 의하여 경주 皇龍寺 殿塔燒盡
1276.12	忠烈 2	魯國公主를 위한 宮闕修築
1308.	同王34	修德寺 大雄殿및 壁畫 造營
1327.	忠肅14	成佛寺應眞殿 完工
1348.	忠穆 4	敬天寺 10層石塔 建立
1359	恭愍 8	松廣寺國師殿 完工
1363.	同王12	鳳停寺極樂殿 補修
1368.	同王17	深源寺 및 玄昱國寺 창건
1377.	偶王 3	浮石寺 祖師堂 再建
1384.	同王 9	釋王寺 創建

하다. 그 뒤에는 유사시 동원령을 발휘했던 元德殿 일곽을 이루고 있다.

서쪽에 있는 건덕전 북쪽에는 희빈들의 침전인 萬齡殿이 있고 건덕전 동쪽에는 장령전이 있으며 이 북쪽으로 延英殿과 慈和殿이 있었는데 이것은 집현전의 기능을 가졌다. 또 원덕전 뒤에도 전각의 일곽이 회랑으로 돌려져 있는데 그 전각명은 확실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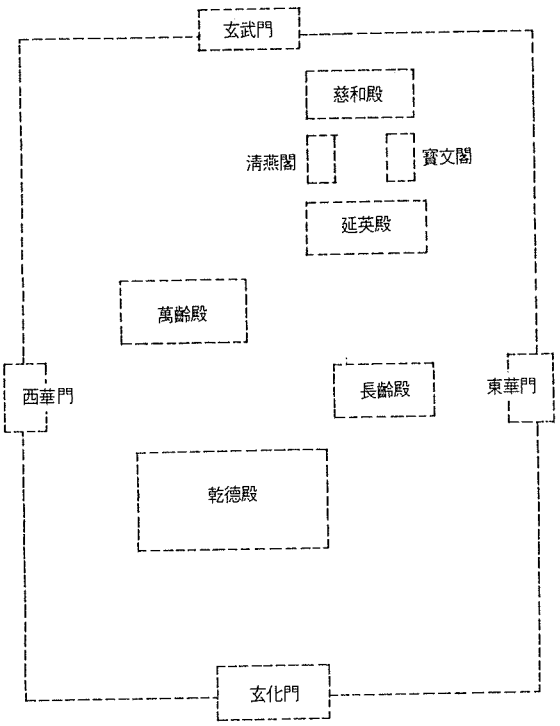
이 외에도 궁 서쪽에 장서각인 임천각터와 많은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근래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건덕전 일곽의 남문으로는 玄化門과 동문으로 東華門, 서문으로 西華門, 북쪽에 玄武門이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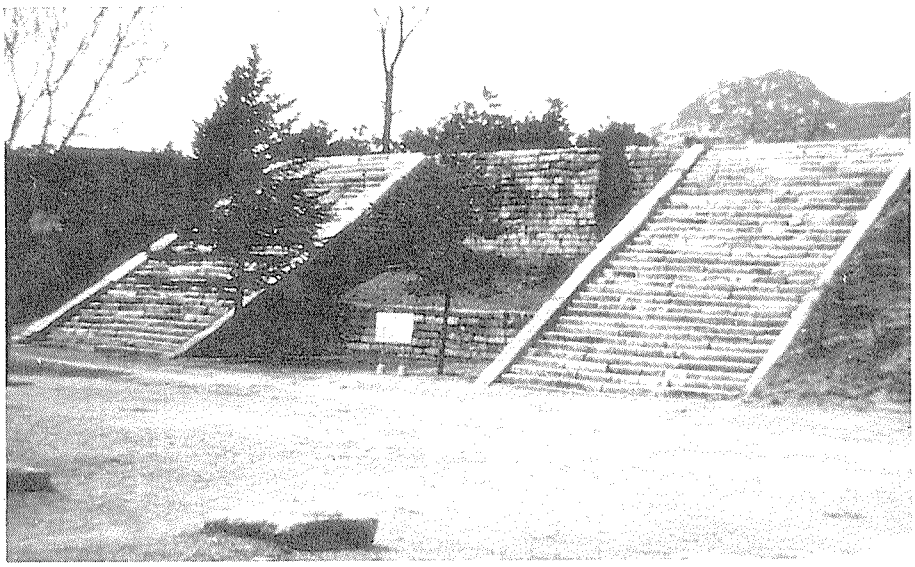
고려의 궁궐은 이외에도 壽昌, 延慶, 鷄林, 仁德, 康安宮 등의 별궁이 있었다.

또 앞서 말한 江都에 고려궁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알 수 없고 다만 경사진 지반에 지형을 맞추어 건물을 배치한 것은 특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단축을 하여 조영한 궁터는 삼별초의 궁터로 알려진 용장산성의 궁지를 보아서도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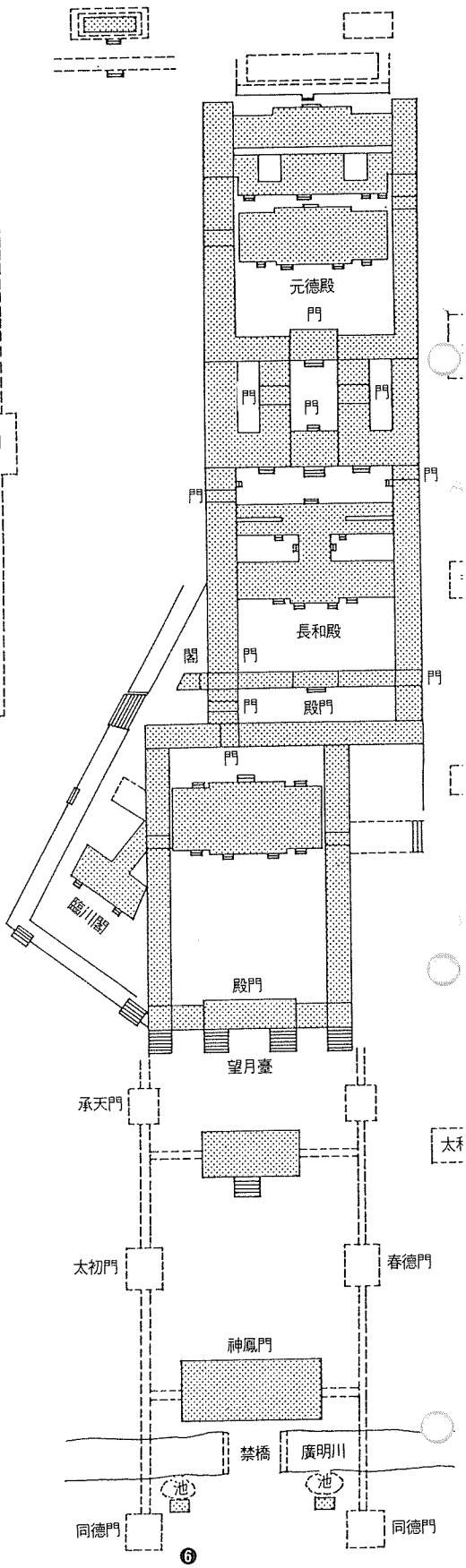
특히 만월대는 지형을 제외하고는 배치에 있어 고구려의 안학궁과 상통하는 특성을 갖고 정전 역시 평문을 主·翼體를 두어 솟을 지붕을 한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❺ 滿月臺 會慶殿 앞 계단
❻ 滿月臺配置圖





❺



❻

註

1)珍島郡, 銀河建築研究所, 珍島 龍藏城, 地表調査報告書, 1985.
2)北濟州郡, 北濟州郡誌, 1987.
3)高麗史 卷弟五十六, 地理志.
4)高麗圖經 弟三卷 城邑 國城條, 其城周圍六十理, 山形繚繞 雜以沙礫 隨其地形而築之, 外無濠塹, 不施女墻, 列延屋, 如廊廡狀, 頗類敵樓.